행정자치부	보 도 자 료	작성과	국가기록원 수집기획과
	2017년 6월 23일(금) 조간 (6. 22.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강성천 연구사 서정호
		연락처	042-481-1782 042-481-1758 010-6603-1530

국가기록원,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소재 고려인 관련 기록물 공개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이 고려인 강제이주 80년을 맞아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국립영상보존소가 소장하고 있는 고려인 관련 기록물을 공개한다.

○ 국가기록원은 고려인 강제이주 80년을 맞아, 그동안 고려인 관련 기록물의 소재를 조사해 왔으며,

* 고려인들은 1937년 8월 구(舊) 소련 정부에 의해 약 17만 명이 연해주 등지로부터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로 집단이주 되었음

○ 최근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국립영상보존소로부터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여 이번에 공개하게 되었다.

* 6.19(월) 국가기록원-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고려인 기록물 인수식 개최

□ 이번에 공개하는 기록물은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에 이주한 고려인들의 초기 정착과정과 집단농장(꼴호즈)에서의 농업활동 등 다양한 생활상을 담고 있는 사진과 영상 기록물이다.

* (우즈베키스탄) 사진 64점, 영상필름 8점 (카자흐스탄) 사진 51점, 영상필름 18점

○ 먼저, 우즈베키스탄 국립영상보존소 소장 기록물은 1940~90년대 고려인들의 집단농장과 생활상을 보여주고 있다.

- 중앙아시아에 정착한 고려인들은 척박한 황무지를 개간하여 이 지역에서 벼와 옥수수의 생산을 비약적으로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이번에 공개된 '우즈베키스탄 집단농장에서 벼와 옥수수를 수확하는 모습' 등의 사진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특히,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역사의 증인으로 손꼽히는 김병화의 초상화도 공개되었다.

- 김병화(1905~1974)는 황무지를 개간하고 쌀 생산 등을 비약적으로 증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구(舊) 소련 정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노동영웅' 훈장을 받았다. 그가 일했던 농장은 원래 '북극성 집단농장' 이었으나 1974년 그가 죽은 후 그의 업적을 기려 '김병화 집단농장'으로 변경되었다.

- 아울러, 우즈베키스탄에 정착한 고려인들의 집단농장과 생활상을 생생한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어 흥미롭다.

* 몰로토프 집단농장의 벼수확(1940년) / 김병화 집단농장(1948년) / 농작물의 여왕, 옥수수(1962년)

○ 우즈베키스탄 국립영상보존소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은 고려인들의 생활 모습이 잘 담겨져 있어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가치가 높은 기록물로 평가 된다."라고 밝혔다.

□ 한편, 카자흐스탄 국립영상보존소 소장 기록물 역시 고려인들의 집단농장과 생활상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 특히, 고려인 가운데 세계적 체조선수인 넬리 김(1957~)의 훈련 모습과 카자흐 국립체육대학 시절의 모습이 공개돼 흥미를 끈다.

- 넬리 김은 고려인 소비에트 연방 체조선수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를 각각 획득해, 한 때 '체조요정'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 또한, 카자흐스탄 고려인 가운데 대표적 개척자로 평가 받고 있는 김만삼(1882 ? ~ 1964)의 초상화도 공개된다. 그는 카자흐스탄 집단농장에서 1942년 벼 수확량을 획기적으로 늘려, 구(舊) 소련 정부로부터 '노동영웅' 칭호를 받기도 했다.

○ 이 외에도 카자흐스탄 집단농장의 모습을 비롯해 고려인들의 대표 신문인 '고려일보' 관련 기록물도 함께 공개되었다.

- '고려일보'는 1938년 카자흐스탄에서 창간한 '레닌기치'의 후신으로 소련붕괴 이후 제호를 변경하여 발행되고 있는 대표적 고려인 신문이다.

□ 국가기록원은 이번에 수집한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기록물 정리가 마무리되면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려인 관련 기록물도 지속적으로 수집할 계획이다.

□ 이상진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은 "올 해는 고려인 강제이주 80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이번 고려인 관련 기록물 공개를 통해 일제강점기 이후 재외 한민족의 이산(離散)의 역사를 복원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국가기록원은 앞으로도 관련 기록물의 지속적 수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붙임1 우즈베키스탄 · 카자흐스탄 소장 고려인 기록물 관련 참고자료

<table>
<tr><td>
</td><td>
</td></tr>
<tr><td>①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소장 고려인 기록물 인수식(6.19) -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오른쪽)과 우즈베키스탄 국립영상보존소 팀장 미랄리 미르마크무도브(왼쪽)</td><td>②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소장 고려인 기록물 인수식(6.19) - 이상진 국가기록원장(왼쪽에서 5번째)과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국립영상보존소 관계자들</td></tr>
<tr><td></td><td></td></tr>
<tr><td>③ '북극성 집단농장'의 김병화
(우즈베키스탄, 1957년)</td><td>④ '깔리닌 집단농장'의 농부가 두 배의 수확을 거두고 기뻐하는 모습(우즈베키스탄, 1969년)</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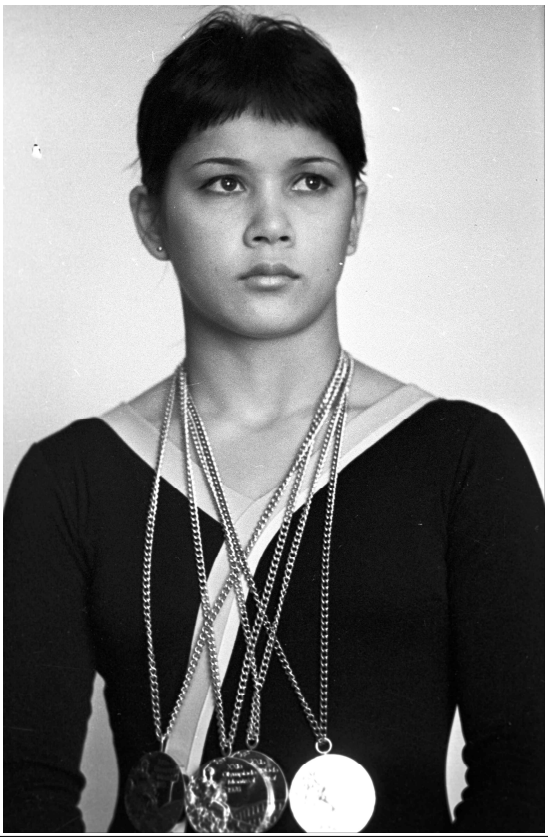
<table>
<tr><td></td><td></td></tr>
<tr><td>⑤ ‘폴리트 아트젤 집단농장’의 관계자가 수확한 옥수수를 살펴보는 모습(우즈베키스탄, 1960년)</td><td>⑥ ‘자이언트 집단농장’의 농업연구원이 수로를 점검하는 모습(우즈베키스탄, 1951년)</td></tr>
<tr><td></td><td></td></tr>
<tr><td>⑦ ‘베가와트 집단농장’의 작황을 둘러보는 모습(우즈베키스탄, 1982년)</td><td>⑧ 벼를 수확하는 모습(우즈베키스탄, 1962년)</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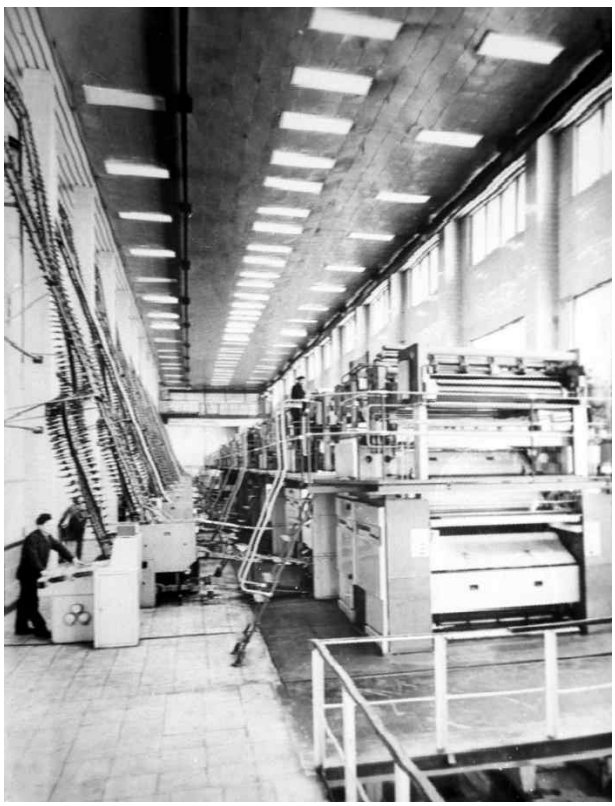
⑨ '선봉(아방가르드) 집단농장'의 김만삼
(카자흐스탄, 연도미상)



⑩ 체조 훈련 중인 올림픽 챔피언 넬리 김
(카자흐스탄, 1976)



⑪ 카자흐스탄 국립체육대학 시절의 넬리 김
(카자흐스탄, 1976년)



⑫ '고려일보'의 모습(카자흐스탄, 1994년)



⑬ 벼 수확을 앞두고 농장을 둘러보는 모습
(카자흐스탄, 1967년)



⑭ 벼농사 작황을 살펴보는 모습
(카자흐스탄, 1967년)



⑮ 벼농사 작황을 살펴보는 관계자들
(카자흐스탄, 1969년)



⑯ 노동절 기념행사를 하는 고려인들
(카자흐스탄, 1979년)

붙임2 우즈베키스탄 소장 고려인 관련 영상

	○ **몰로토프 집단농장의 벼 수확(1940년)** - 우즈베키스탄 몰로토프 집단농장에서 벼를 수확하는 모습 등
	○ **김병화 집단농장(1948년)** - 김병화가 집단농장에서 증산을 독려하는 모습 등
	○ **농작물의 여왕(1962년)** - 우즈베키스탄 집단농장에서 옥수수를 살펴보는 농장관계자들의 모습 등